

“천년 고찰에서 고향생각 달랬어요”

“한국 사찰에 처음 와 봤어요.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반타(25·베트남)
“서울에서 일하다가 부산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범어사에 처음 왔는데 스님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돼 기뻐요.” 완진홍(30·베트남)
고국을 떠나 먼 이국땅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부산의 외국인 노동자 50여 명이 6월 20일 오후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 초청으로 범어사를 찾았다. 네팔, 베트남, 파키스탄, 스리랑카, 미얀마 등 그들이 떠나온 곳은 달라도 모두 이국 생활의 고달픔과 소외감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들이었다.
그때서일까? 점심 공양 후 자원봉사자의 안내로 범어사를 둘러본 이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좋다” “아름답다” “즐겁다” 등 한마디 짧은 말로 혹은 유창한 한국말을 구사하며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행사는 부산불교신도회가 부산 인근에 거주하는 3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개최한 첫 행사로 우선 부산과 양산 인근에서 한국어 공부 모임의 외국인들이 범어사에 초청됐다. 공양, 사찰 안내, 범어사 포교국장 무관 스님의 법문, 선물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공병수 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머나먼 이국 생활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우리 불교문화와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신심의 안정을 되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연말에 다시 만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불교신도회는 이날 행사를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연 4회 정도로 확대, 재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포교에 더욱 관심을



부산불교신도회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범어사 초청행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사진은 6월 20일 범어사를 찾은 부산 거주 외국인노동자들.

부산불교신도회, 재부 외국인 노동자 범어사 초청 공양·사찰안내·법문 등... 연 2~4회 행사 계획

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여해 교류를 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인연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수행과 참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재가신도 중심의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부

산불교신도는 7월 5일 오후 7시 국제신문 중강당에서 부산불교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불교신도회 포교교육부(과위원장 이숙희)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는 ‘지역신도회의 활성화’를 위한 중단의 역할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포교원 신도국장 원철 스님의 기조 발제와 부산불교신도회의 역할과 과제, 지역 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승가의 역할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불교계의 내외적 변화에 맞춘 부산불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051)853-2021
글·사진=천미희 기자 mincheon@buddhapia.com

순국선열 합동 위령제 봉행

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서 1천여 대중 참가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운승)은 6월 24일 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제24회 순국선열호국전몰군경 합동 위령제를 봉행했다.
이날 위령제에는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종정 혜륜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법정, 총무원장 운승, 종회의장 성주, 교육원장 송과, 대한불교종단협의회회장 의륜, 호국불교원각종 종정 혜철, 한국불교여래종 종정 인왕, 배상도 철곡군수,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1천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의전단이 법전사 법당에서 순국선

열 위패를 이룬해오는 이운식을 시작으로 법요식과 위령제가 거행됐다.
위령제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육법공양, 묵념, 헌화 및 분향, 묘법연화경 봉독, 대회사, 추모제 헌시로 이어졌다.
종정 혜륜 스님은 “24년 전 참전을 하다가 철곡이 한국전쟁당시 치열했던 접전지였음을 알고 위령탑과 전적비를 세우게 됐다”며 “위령제를 통해 모든 불자들에게 호국불교의 이상을 심어주고 대한민국이 있어야 내가 있다는 애국애족의 의식을 고취시켜주고 싶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울산 정토사 설법전 상량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은 6월 23일 설법전 법당 상량식 및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초청 설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상량식은 포교원장 도영 스님,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을 비롯한 3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이날 상량식을 가진 설법전은 2004년 불사를 시작해 1층에 85평 규모의 생활관에 신도휴게실, 신도회의실, 사무실, 차방, 불교용품점을 두고 2층은 3백여 명의 대중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설법전을 갖겠다.
상량식에 앞서 한국언론기자불자회 울산 지역회 창립 법회와 함께 열린 도영 스님 초청 설법회로 열렸다.
한편 덕진 스님은 7월 2일 12시 정토사 강당에서 스님의 명상 시집 <맑은 마음 고운 세상>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 (052)258-9944
천미희 기자

당 성가대 등의 찬불가, 찬송가 공연과 원불교 오해심 교무의 판소리, 박영재씨의 유교 시장 순서도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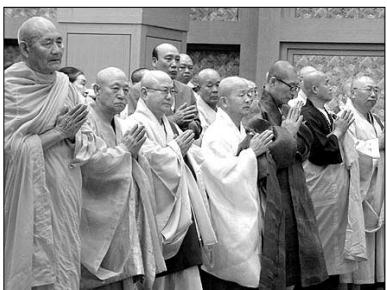
천미희 기자

공군포병학교 군법당 낙성

대구 공군방공포병학교에 군법당 감천사가 들어서서 군 포교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감천사는 조계종단에서 군포교지원금으로 4천만 원을 지원받고, 공군 복지단 보라매 법당에서 기본 자재를 보시 받아 지난 3월 23일부터 착공에 들어가 6월 19일 부처님 불발 점안식 및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낙성법회에는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공군본부 군법당 선군 법사, K2 성무일승사 주지 등산 스님, 방공포병학교장 주영환 준장, 1여단장 이희회 대령, K2 성무일승사 신도회장 신용택 대령, 동화사 봉황합창단, 군 불자 장병 및 사병 등 사부대중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총 80명 규모의 감천사는 조립식 건물로 57평 법당과 사무실 공양간을 갖추고 제9교구부사 동화사의 도움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후불탱 1위, 신중탱 1위를 모셨다.
배지선 기자

“남·북 마음의 거리 좁히기 지속”

‘참여불교’ 창립 1주년 기념법회



통일을 앞당기자”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열사, 그리고 북한 용천역 폭발참사 희생자를 위한 위령대기도 봉행했다.
법회에는 평북협 회장 법타 스님, 자비의 신발보내기 운동본부 단장 황정 스님, 방사능 후원회장, 왕선사 운영위원장, 안준태 부산시 정무부시장, 윤원호 열린우리당 불자회 회장 등 1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참여불교운동본부의 창립 1주년을 축하했다.
참여불교운동본부는 2004년 5월 북한 용천역 폭발참사에 희생된 영가를 천도하기 위해 봉행된 천도재를 계기로 창립된 단체로 2004년 9월부터 북녘어린이에게 매일 신발 1천 켤레를 지원하는 등 불교의 사회참여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평생 교육을 위한 백양 도에 타운 운영, 복지 인재 양성을 위한 동명대학 복지학과내 참여불교캠퍼스 개설 등 다양한 사회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현재 참여불교캠퍼스에는 26명의 불자들이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향해 향학열을 불태우고 있다.
천미희 기자

남해 망운암 망운암주지 성각이 6월 22일 보광전, 요사채 낙성 및 고산 스님 초청 삼존불 봉안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조계종 원로의원 고산 스님을 증명 법사로 봉행된 이날 법회는 남해사암련 회장 묘유 스님, 하영재 남해 군수, 김상현 부산 일보 사장, 노기태 국제신문 사장을 비롯 2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불교TV 열불공양모임의 육법공양으로 시작된 이날 낙성법회에서 주지 성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증생의 원력이 있는 곳에는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고, 가피가 충만한 곳에는 반드시 원만성취가 있다는 것

남해 망운암 중창불사 회향법회

고산 스님 초청, 삼존불 점안



은 만고불변한 부처님의 진리”라며 불사회향의 소감을 밝혔다.
이 법회에 오른 고산 스님은 “불법도 행해도 불행도 모두 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내 마음속에 있다”며 “내 한 생각에서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묘음이 나오므로 불법을 부지런히 배우고 실천하여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이루고 마침내는 성불해야 한다”고 설법했다.
이날 고산 스님과 성각 스님의 선사서와 서화 50여 점 전시된 선사화 특별전과 불자연예인 설운도, 김태곤 등이 출연한 산사 음악축제도 함께 열렸다.
천미희 기자

경봉 스님 열반 23주기 법회
양산 통도사 극락암(감원 명칭)은 7월 3일 오전 10시 경봉 스님 열반 23주기 기념 법회 및 경봉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경봉 스님이 직접 설립한 경봉장학회의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열리게 되며 오후 1시에는 경봉문도회도 열린다. (055)382-7083
천미희 기자

자유 2536

반나라마 여름집중수행

근본불교 Saṅgha 반나라마에서는 부처님이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발견한지 2536주년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여름집중수행을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성취한 사띠수행(正念)은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좋은 길라잡이입니다.

구분	대상	기간	시작 / 마감
1차	대학생	7월 13일(수) - 7월 17일(일)	13일 수 오후 2시 17일 일 오후 2시
2차	일반인	7월 20일(수) - 7월 24일(일)	20일 수 오후 2시 24일 일 오후 2시
3차	교사직무연수	7월 25일(월) - 7월 29일(금)	25일 월 오후 2시 29일 금 오후 2시
4차	중·고등학생	7월 29일(금) - 8월 2일(화)	29일 금 오후 2시 2일 화 오후 2시
5차	초등학생	8월 3일(수) - 8월 7일(일)	3일 수 오후 2시 7일 일 오후 2시
6차	일반인	8월 10일(수) - 8월 14일(일)	10일 수 오후 2시 14일 화 오후 2시

● 참가인원 : 매회 40명 선착순 ● 참가비 : 10만원, 교사 직무연수 15만원
● 준비물 : 세면도구, 슬리퍼, 하얀색 상의(하의 수행복 지급)
● 문의 및 접수 : 반나라마 http://www.pannarama.net
011-1700-2841, (055)331-2841 / 전송 : (055)331-2842

우리가족의건강지킴이

묘향산 전록탕

최고의 건강!

본 제품은 전 북한 만수무강연구소 약국장이 직접 제조한 신비의 건강식품

보정, 보기 보혈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 김일성이 생전에 빠뜨리지 않고 먹었던 35가지 약성분을 배합한 것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잘 맞도록 만들어진 식품이다. 만성피로에 시달리거나 원기가 부족한 사람, 수술후나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물론,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 전록탕의 효능 ※
(보혈, 보기, 보정, 작용이 탁월하다)
적혈구, 백혈구의 생성 활발행렬작용을 한다.
중년 남,녀들의 기억강화,갱년기 장애를 해소시키고 젊음을 찾아준다.
기를 보하며 면역력을 높여준다

동의학 박사 허창길

● NK내츨 대표 허창길
● 사리원 동양대학교 졸업
●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 약국장
● 한의담당 동의학 박사

이미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있는 묘향산 전록탕 그 효능이 탁월합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말하는 묘향산 전록탕은 묘향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가시오가피"를 북한에서 직수입하여 "동충하초"를 비롯한 우수한 한약재를 "약물동역학적"으로 제조한 안전한 건강식품입니다.

판매원 : 록원 (02)771-2985 ● 제조원 : NK내츨 ● 총판대리점모집 02)755-9821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060-700-1080

일발전환·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우리의
1080 누르고 福 지으세요